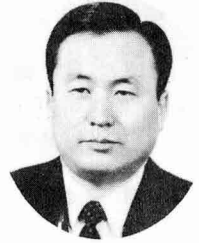


祝 辭



勞動部次官 韓 貞 熙

親愛하는 大韓産業保健協會 會員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參席하여 주신 來賓 여러분!

오늘 87年度 大韓産業保健協會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그동안 協會發展을 위해 애써오신 「曹圭常」會長님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먼저 感謝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大韓産業保健協會는 우리나라가 工業化를 始作한 60年代 現會長이신 「曹圭常」博士님을 비롯한 뜻있는 몇분들에 依하여 設立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20餘年間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 下에서도 오직 經濟成長의 原動力인 우리 勤勞者들의 健康을 걱정하고 그 維持增進에 寄與하면서 發展을 거듭한 結果, 이제는 國內外的으로 높이 評價를 받는 그야말로 名實相符한 産業保健專門團體로 成長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말할 必要조차 없이 産業現場에서 땀흘려 일하는 勤勞者들을 온갖 職業病으로 부터 保護하며, 生産性向上을 통한 國家社會發展에 이바지하겠다는 여러분들의 意志와 努力의 結實이라고 本人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자리를 빌어 800萬 勤勞者와 함께 아낌 없는 讚辭와 激勵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3低好機를 맞아 모처럼의 活氣를 되찾고 國民 모두가 맡은바 職分에 充實함으로써 經濟·社會의 安定을 維持하는 가운데 第2의 跳躍을 이룩하여 史上 처음 國際收支의 黑字를 創出해 냈습니다.

今年에도 이와같은 劃期的인 經濟發展은 많은 專門家들에 依하여 밝게 展望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外債도 相當部分 償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今年은 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國民的 和合이 그 어느때 보다도 切實히 要求되고 있으며 모든 分野에서의 跳躍과 發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國家的 大行事인 88 서울올림픽의 開催準備를 完了하는 한편, 우리 憲政史上 일찌기 없었던 平和的 政權移讓의 實現을 위해서 必要한 모든 措置를 매듭져야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人類가 살고있는 그 社會形態가 어떠한 모양이던 健康한 삶을 통하여 幸福을 追求한다는 것은 人間의 本能이요, 모든 社會構成員의 基本的 欲求입니다.

이와같은 脈絡은 産業社會에서 일하고 있는 全體 勤勞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의 健康을 保護하고 그 能率을 向上시켜 우리 經濟社會를 富強하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課題인 것입니다.

이에 政府에서는 올해의 勞動施策 中에서 産業災害 豫防과 勤勞者 健康保護를 最優先 課題로 定하고 다음과 같은 重點事業을 推進해 나갈 計劃입니다.

첫째는, 不良한 作業環境을 改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作業環境의 基準이 되는 許容 濃度規制對象物質을 過去 60種에서 395種으로 大幅 擴大하고, 4月부터 全國에 걸쳐 作業環境이 좋지 못한 事業場 1,500 個所를 주려 集中的인 改善指導를 펴 나갈 方針입니다.

둘째는, 勤勞者健康診斷의 內實을 期하고 檢診秩序를 確立하여 그동안 不實했던 檢診을 改善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今年부터는 一般健康診斷을 強化하여 30才 以上 勤勞者에 對한 肝機能檢査를 追加하고 健康診斷 醫療機關을 指定制로 하여 責任檢診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加급적 勤勞者를 病院에 보내어 診斷을 받게끔 指導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는, 事業場의 保健管理體制를 定着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政府는 昨年에 産業安全保健法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改正하여 保健管理者의 選任이 形式에 그치지 않고 實質的인 産業保健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며, 有害危險한 業種은 30人以上의 경우도 保健管理者의 選任을 義務化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工團등 事業場 密集地域에 對해 集團保健管理를 할 수 있는 制度를 施行하여 保健管理業務의 專門化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會員 여러분!

이와같은 政府의 勤勞者 健康維持 增進施策이 勤勞者 各個人의 健康保護와 直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産業保健分野에서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여러분의 積極的인 支援과 獻身的인 努力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貴 協會는 이러한 召命意識을 갖고 우리나라의 産業保健을 主導하는 專門團體로서 그간에 蓄積된 經驗과 技術을 바탕으로 勤勞者 健康은 물론 國民保健向上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當付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스물네번째 맞이하는 貴協會의 定期總會에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비바람에 시달린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金言을 想起하면서

貴 協會와 會員여러분의 勞苦에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貴 協會의 무궁한 發展이 있기를 祝願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